



2020 하반기

청렴레터

청렴한 당신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연수원 이야기



판소리 인포부부 인터뷰

Q. 어떻게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판소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을 주제로 판소리 공연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판소리를 창작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설레기도 했고,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공연을 한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Q. 청렴판소리를 통해 전국에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A. 다소 무거운 주제로 공연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딱딱해지겠다고 생각했지만 공직자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 주셔서 저희 부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공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판소리 부부로서 공연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맨날 붙어있어서 지겨운 게 단점이긴 하죠(웃음). 하지만 부부가 아니었으면 오랫동안 같이 공연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가끔 서로에게 서운한 점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무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맡은 바 책임을 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청렴'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연을 준비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렴이 봉사를 만났을 때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수해복구에 도움을 보내고자 청렴연수원 직원들의 뜻을 모아 충북 영동군 양강면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밀려온 토사를 정리하고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느라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청렴연수원은 앞으로 도 국민이 재해로 아픔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

청렴아카데미 자문단을 소개합니다.

'청렴 아카데미 자문단'은 청렴교육 분야에 대한 제언, 청렴교육의 질적 향상 등 수준 높은 청렴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계, HRD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기 자문단에 이어 온라인 교육 및 미래세대 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제2기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제2기 자문단의 출범으로 청렴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 방송국이 생겼어요

청렴연수원에서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회분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제1방송 스튜디오에 이어 제2 방송 스튜디오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제2 스튜디오는 기존 스튜디오의 세배 규모로 토크쇼, 소공연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다.



2021년 청렴연수원 새사업 소개

2021년부터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콘텐츠 제작을 확대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렴 웹드라마 제작, 청소년용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을 제작·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청렴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이버 청렴교육(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에 장애인도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수어 통역, 내레이션 자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기분야 수상작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이다. 제작년 7월,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나는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마치 다산 정약용에 빗대어 '막힘 없이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갔다. 그때 농장을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다음날 있을 중국관광객의 단체 체험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틀날 농장은 수확 체험을 하는 중국 여행객들로 붐볐고, 가이드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이거 팔아주는 대신, 가격 2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순간 난 머리가 멍했고,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고 말았다. 끝내 양심의 가책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다. 며칠 후, A기업의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관은 나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라고 하셨는데,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대처한 경험이 있나?'는 질문을 했다. 나는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을 대답하였으나, 면접관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며 당연한 행동이라는 듯이 반박을 하였다. 면접관 말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관뿐만은 아니었다. 심지어 30년 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동네 아저씨도 그 가이드의 제안을 왜 받지 않았냐는 식으로 농담을 하였다. 나는 한참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청렴한 세상인가?' 한참동안 나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고, 나 스스로 '정의로운 척하는 겉쟁이'로 결론을 내었다.

다음해,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또다시 방문하여 같은 제안을 해왔고, 잠시 고민하다가 가이드의 제안을 승낙했다.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처음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지만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1년 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다. 고작 눈앞에 있는 돈을 더 벌자고 더 많은 것을 잃은 셈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작년의 나는 꿀을 찾은 벌이었고, 지금의 나는 꿀에 빠진 개미이다. 나는 옥죄어 오는 꿀의 끈적임에 평생을 꿀단지 안에 갇혀 살아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몸소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시(詩)분야 수상작

벌자국

1월, 함박눈 사이에 태어났다.
할머니는 내게 눈처럼 희고 곱게 살라하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태어나서는
내가 걸어온 눈길은 온통 진창길이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왔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고
비껴들어 오는 검은 손을 잡을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믿고
속삭이는 검은 말들에 수궁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믿고
검디검은 순간들에 안주할 때조차

어깨에 내리는 하얀 눈꽃송이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세상은 눈 덮인 하얀 세상이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왔다.
눈을 드러밖은 무수한 벌자국이 나왔다



2020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는 수기, 시, 영상, 노래, 웹툰, 카드뉴스 분야에서 총 1,797편의 응모 작품 중 50편의 작품이 수상적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작은 공모전 누리집(www.integritycontents.kr)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부정부패 바이러스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그 전염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모습이 어느덧 익숙해진 듯하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에게 익숙하던 소통의 방식을 순식간에 바꾸어 온라인 개학, 무관중 경기 등과 같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 소통 방식이 사회 전반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 세계를 엄습한 이 질병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비대면(Un-tact)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게 했고,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교육 분야에서도 빗겨 갈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 공직자 청렴교육의 요람인 청렴연수원은 이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5월 실시간 온라인 청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집합교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이제 막 공직을 시작한 새내기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에게 한결같은 반부패·청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1일부터 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가 화상회의로 공동개최한 제19차 국제 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 청렴연수원은 온라인 인문강의를 통하여 전 세계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역사 속 청렴 사례를 소개하며 K-청렴의 세계화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예로부터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 삼지 않은 이가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종식을 희망하고 있듯, 작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는 '부패와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될 때 국민 모두의 염원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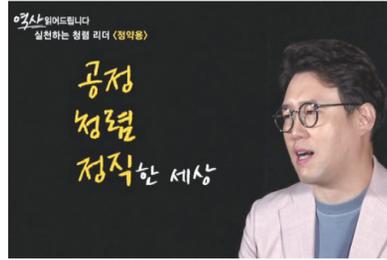
국민이 바라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진경희



청렴특집 방송강연 <역사 읽어드립니다>



청렴의식 확산 특집 방송 프로그램 <역사 읽어드립니다>가 지난 11월 20일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 채널에 공개되었다. 「역사저널 그날」 등에서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입담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강연하였다. 방송은 역사서 「난중일기」, 「목민심서」 중 '청렴', '공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과 국민 다수가 쉽고 흥미롭게 청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해당 강연 영상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국제반부패회의(IACC) 부대행사 영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청렴위인으로 이순신과 정약용의 업적과 일화를 전 세계 참석자에게 소개하였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IACC 온라인 국제 행사장에 콘텐츠 지원

2014년 청렴라이브(구 청렴콘서트) 실시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들을 위해 공연하였다. 청렴연수원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한민국 대표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의 청렴판소리, 마당극, 연극 등을 영어자막 버전으로 제작하여 IACC 온라인 국제 행사장에 소개하였다. 또한, 올해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웹드라마, TV 방송강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석학과 참석자에게 K-Integrity의 우수성을 알렸다.



청렴 콘텐츠 IPTV로 간편하게 시청 가능해져



청렴연수원에서 자체 개발한 양질의 청렴교육 콘텐츠를 KT 올레tv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반부패·청렴' 콘텐츠 확산 경로를 다양화하던 중 (주)KT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정에 설치된 IPTV에서 청렴교육 콘텐츠를 쉽게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T 올레tv 전용관에서 시청할 수 있는 청렴교육 콘텐츠는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생활 속 청렴정보통' 등 반부패·청렴 교육영상으로 총 27편이다. 청렴연수원은 교육현장 외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청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을 계속 확대 중이다.

세계 26개국 공무원에게 K-청렴 알리

청렴연수원은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지난 11월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10개국 대상으로 러시아어 연수과정을, 대만,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15개국 공직자 대상으로 영어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과 반부패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 연수도 진행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전수하였다.



1 웹드라마



2020년 국민대상 청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청렴 웹드라마 '달콤하지만 고된 나의 사춘기'('달고나')를 제작하였다. '달고나'는 교내 부정행위를 친구들의 우정으로 극복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



다. '달고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렴 덕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현재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청렴연수원은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소재 및 스토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2 북리닝

최근 새로운 독자 형태인 북리닝(Book Learning)으로 반부패·청렴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북리닝은 다양한 분야의 청렴 필독서를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책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교육 방식으로 1권당 20분 내외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Hacker의 심리학',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등의 청렴 필독서를 선정하여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독서전문가 최승필 작가, 이은재 P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3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는 청렴 6덕목(공정, 배려, 절제, 약속, 정직, 책임)을 주제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청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교육자료이다. 귀여운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친숙한 전래동화를 활용해 재미와 청렴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유아용 영상의 경우엔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4 청렴트렌드-2020

청렴 가치에 기반한 대국민 인식조사(청렴트렌드-2020)를 진행하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대한민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정직·배려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인식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개천에서 용난다' 등 속담에 대한 공감도, "연초 계획한 가족여행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했느냐?" 등 현 상황별 공감도 등과 같이 주제별 인식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으로 구성됐고, 설문 결과는 향후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청렴교육 콘텐츠 이용 방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crc.go.kr>) '청렴교육자료' 및
유튜브(<http://www.youtube.com>) 국민권익위원회 채널 '권익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